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선교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오늘은 '선교주일' “주의 얼굴 구하는 온 땅 바라보게 하소서” 찬양예배시 선교위 관계자 전원 특별찬양

오늘은 2000년도 '선교주일'이다. 온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월 말에 지키는 선교주일을 통해 충현의 성도들은 평신도 선교훈련생으로서, 단기선교단의 일원으로서, 혹은 단기 평신도 선교사로서 더욱 자신을 드릴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선교현장)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심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더욱 확고히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선교위원회는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위원회에 관계되는 선교위원 및 실행위원, 외선부 교사들, 단기선교팀 등이 전원 동참하여 찬양예배시 특별찬양을 부르기로 하였으며, 찬양예배 후에는 만나홀에서 기도를 가지기로 하였다. 선교위원회 관계자들뿐 아니라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참여하여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

선교위 특별찬양 연습

시간: 오늘 오후 3시
장소: 만나홀
대상: 선교위원, 실행위원, 외선부교사, 단기선교팀

선교기도회

시간: 찬양예배후
장소: 만나홀(자녀식사 준비됨)
대상: 선교위 관계자 및 선교관심 성도들

제3회 전국목회자 세미나 “성경적 영성과 복음의 능력” 해리스 박사와 쉴더스 박사 내한 2월 21~23일 거행

제3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1일(월)에서 23일(수)까지 거행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사역의 복음중심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이루도록 설교하는 이 세미나는 지난 1, 2회 동안 참신한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이번 3회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교수들은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거나 목회현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역하는 이들로서 참여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 초청되는 강사 중 알렌 해리스는 미국 컬럼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며 웨스트민스터신학원 강사로서 목회자와 강로 간의 아름다운 동역을 지도자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할 예정이다. 스티브 쉴더스는 미국 리폼드신학원의 교수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개혁 사역'과 '복음의 변혁시키는 능력'을 강의하는 명강사로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복음의 변혁시키는 능력'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훈련원에서는 성도들이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로 지원하면서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신청 오늘까지 논술·면접은 2월 12일(토)

전반기 소석장학생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오늘까지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하여 교육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학 이상 장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논술 및 면접시험은 2월 12일(토) 오전 10부터 교육관 50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장학생 후보자 전원 참가자는 선교환은 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충현기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외국인선교부 겨울수련회 2월 4-6일, 아멘홀에서 “한복 빌려 주실 분 기다립니다”

외선부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아멘홀에서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주제는 '예수의 흔적을 체험하자'이며 강사는 이승수 목사와 류병희 목사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외국인 지체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외선부에서는 이번 수련회를 위해 지원할 교사, 차량지원 도우미, 예배 및 찬양인도 도우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소개한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른의 한복이 있는 성도들의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은의는 구내전화 238번(외선부교사실)이나 356번(선교위원회실)으로 하면 된다.

계속되는 교구 “경로심방”

새해 1월 초부터 시작된 교구별 “경로심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역자들은 각교구의 경로대상 성도들(70세 이상)을 심방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위로할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연초마다 진행되는 이 경로심방을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이 외로운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는 은총을 입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두 분의 신앙선배를 주님 품으로 고 조현명 원로장로 고 고병욱 은퇴장로 장례식

고 조현명 원로장로와 고 고병욱 은퇴장로가 각각 지난 1월 22일과 2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4일과 26일에 교회장을 통해 성도들의 환송을 받았다. 주님 품에 먼저 안긴 선배신앙인들의 뒤를 이어 충현의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해야겠다.



고 조현명 원로장로



고 고병욱 은퇴장로

2000년도 청지기훈련 실시

2000년도 청지기 훈련이 지난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연인원 4천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편하게 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구본 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청지기들은 새해를 위한 보다 순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며, 특히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될 수 있기 위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인 목사

청렴한 엘리사처럼

(왕하 5:15-27)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1.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엘리사

엘리사는 크게 농업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소 열두 마리를 앞세워 밭을 가는 것을 보니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왕상 19:19-21). 소를 물고 밭을 갈아 나가는 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가 자기 걸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저 어른이 자기의 걸옷을 벗어 내게 던지는 데는 무슨 뜻이 있겠나?’ 하고 엘리사를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가타부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곧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일하던 많은 일꾼들에게 대접을 하고 엘리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번은 엘리사가 하늘나라에 가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길갈로 가겠다. 여왕이길 갈갈로 가라고 그러신다. 너는 여기 머물리라.” 몇 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 고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결을 떠날 수도 있었겠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뱀엘로, 예리고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때마다 그는 엘리사에게 따라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엘리사가 결에 남았습니다(1-6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한번 내린은 방걸음은 죽을 이외에는 멈추게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여왕에서 갈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뱀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뱀엘로 간다는 것은 여왕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예리고로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는 일신의 편안함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원수 악마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십자가 군병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이적 모그는 할 수 있을까?’라고 다짐하면서 무서스한 한 죄악의 도성으로 엘리사와 함께 갔습니다. 또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영의 장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돌단을 뿜으면서 순결 때까지 늘 찬송하며 요단까지 따라가면’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승천하였습니까. 그후 엘리사는 엘리사가 받았던 은혜를 감당하기 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지 못해 애통을 쓸 때에 그의 집에서 심부름하던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는 문둥병 같은 거 못내어줄 댈텐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치료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놀라면서 ‘큰일났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인간이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 났을 이 사람을 내게 보내는 건 정해지고 하는 무서운 선언이다’라며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전갈을 보였습니다(7-8절).

이제 나아만과 그 일행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습

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뭘까? 내가 아람 왕의 장관이고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왔는데 내다도 안 봐?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아만 장관의 부하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쉬운 일을 하라고 하니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14절).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나아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의 성기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며 이를 고사했습니다(16절). 그리고 나아만의 평안을 기원하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19절).

2. 정계를 부르는 탐심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온갖 예물을 거절하는 것을 열어서 지켜보고 있던 개하시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저를 좇아 가서 무엇에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20절). 그리고 그 길로 귀국지에 온 나아만을 좇아갔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우 소년이 왔으니 청컨대 당상은 저희에게 한 달판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여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챙겨받은 개하시는 집에 다 그것들을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하시가 네가 어디서 오는냐” “종이 아무때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나를 밟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온을 받으며 돌아 올뿐이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쪽이나 여흥을 밟을 때나 나귀보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이네 내가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25-27절). 개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나오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에서 우리는 개하시가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팔아서 잠시 재물을 얻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청렴한 생활을 살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걸옷으로 처서 갈라지게 한 요단강 바닷을 건널 때에 죄악의 모든 욕심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물결 때문에 부귀 영욕을 다 버리고 따라간 엘리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하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 그 통하여 엘리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기사가 나타난 것도 보았습니다. 당장 문둥이 깨끗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매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결 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공로로 지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옛기신 살을 기뻐하는 성찬의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았는지 각자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였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돈 문제입니다. 개인간의 다툼뿐 아니라 국가간 분쟁의 99%가 돈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렴한 엘리사는 돈에 매 붙지 아니하였으니 손뼉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무는 나그네 생활 속에서 욕심을 따라가거나 세상 권세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길갈과 뱀엘과 예리고와 요단강’을 향해 가면서 내 욕심으로부터, 세상 권세나 풍속으로부터 갈라지는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갈라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한 사업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져야 합니다. 갈라지는 것은 내 마음, 내 걸심으로 안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므로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결심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길갈도, 뱀엘도, 예리고도, 요단강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종을 따르던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힘입어 요단강을 가로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품에 떨어진 그 걸옷을 가지고 물을 떠서 가로되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디 계시니이까 그도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우리까지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지라’(14절).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승천의 성도들이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세상에 되어드는 것을 보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살 것입니다.

엘리사는 은혜 받은 다음에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승천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길갈, 뱀엘, 예리고, 요단강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뱀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예리고, 죄악의 도성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세계를 향해 선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예수나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들도 생명의 강에 예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요단강을 건너면 엘리사와 같이 권능의 두루마기(걸옷)을 받게 됩니다. 승천의 모든 성도들이여, 이제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받고서 남은 날은 예수님 따라가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고 물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성관 목사

갈렙의 신앙

민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확하나 믿음없는 보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민 13:30). 보잘 것 없는 젊은 청년 갈렙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지체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중요한 때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600년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건방에 왔고 이제 움직여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음으로 430년간의 노예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 주혜를 얻으시길 건넌다고 할만한 여행의 길에서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세상의 근심이, 소망보다는 다급한 현실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보새가 열두 지파에서 두령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40일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친 이들의 보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룹니다. “바란 땅이 가데스에 이르러 아론과 이스라엘 집 자손의 온 회중에 이르러 그들이 회중에서 그 땅 실태를 보고고”(민 13:26). 이들이 가서 보니 과연 뜻과 같이 흐르는 물은 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실태를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정탐로 취와 같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태입니다”(민 13:27). 이들은 그 땅의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온 것 중 중요한 나뭇 소국은 “그들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민 13:28)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능력이자 희망을 통해서

그런데 갈렙이 안돈시키려 전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갈렙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가 되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주저함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생길 때 믿음은 빛을 볼 수 없게 되며 때때로 인간의 험악, 경멸,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제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여 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쁨이 수염 곧 아론

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사 133:1-3). 현실적으로는 보잘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부어 오심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 왔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일어남, 전진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이들은 세상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참된 소망,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므로 용기있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민 13:30). 이 말은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능히 이길 자가 없는 것을 갈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재함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줄을 것이요 돌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결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주께로써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옮길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합니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일

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마 9:37).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비뿔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때부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32, 33)라며 믿음을 잃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큰 민초, 큰 거민, 견고한 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으로 행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오직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의해서 복음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믿어 영생을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중생하여 아들을 믿게 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새 땅을 정복해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악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한 것보다 더한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난과 번민이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면서 피로워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주시는 은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 매달음의 길, 역추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로 행할 때에 주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용성이 들릴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 참조각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깁니다.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취하기 위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위대한 하나님을 보면서 가나안 거민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취하자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은 것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뺏았은즉 그의 강한 땅으로 내가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신 1:36).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므로 용기있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써 난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방글라데시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김은미

(방글라데시 단기 쾰신도 선교사)

하루에 다섯 번씩 울리는 아잔소리하며 각기 기괴한 소리를 내며 제사하는 헌두들. 지난 10개월간의 자를 돌아보면 온통 후회스럽고 주님께 송구스러운 일들 부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지도. 제가 봉사했던 음악학교는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워낙 서양음악이 전무한 땅이어서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정도 없었던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학습량은 선생인 저를 오�히려 긴장시킬 정도였습니다.

각기 무슬림의 배경을 가진 그들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찬양으로 인도되고 또 성경공부를 통해 서서히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인정해 가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결국 그들은 살람이라는 찬양집을 만들고 찬양 테이프까지 제작하는 열심을 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 학생 여러 명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나오. 순간 머뭇대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사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곳에서 결혼도 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희 가슴을 치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어쩔만하니까? 이 부족한 사람은 매일 힘들다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저희는 돌아와서 저를 마지막으로 그 곳에 한양인 사역자는 없습니다. 안타까움과 미련이 남았지만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그 귀한 곳에 곧 보내져 섬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요, 진 혼련의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죽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직접 목격한 자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 되지 않도록 방글라데시에서의 시간들을 가슴에 묻고 다시 뒤흔들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이라면 땅 끝 어디라도 달려 가는 자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조문환(목사, 고등부 지도)

인도의 눈물, 실론토라 더 알려진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 그러나 나의 느낌은 그것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둡게 느껴졌다. 17년간의 분쟁으로 국토가 탕진되고 카스트로인한 계층간의 갈등, 그리고 섬 한가운데 있는 불치사(부처의 송곳니를 안치한 절)를 제외한 자랑으로 삼는 불교의 나라이다. 가는 곳마다 입구에 부처상이 있고 매일 아침 염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복음의 불모지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기 선교이후에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시작된 스리랑카신교회는 이제 단기사역과 중장기 사역이 조화를 이루며 점점 그 기초를 놓아가고 있다. 이번 단기 선교단은 선교부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학생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는 달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대대히 복음을 전하자 신도하게도 복음이 받아 들어졌다. 함께 열정적이게 하는 데에 대한들과 그들의 젊은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공원과 학교, 복잡한 비스안,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교의 하이라이프는 '스리자야넨푸라 대학'에서의 전도잔치이다. 그 대학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대학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전도잔치를 그것도 민족의 최대명절에, 그들이 일년에 꼭 한번 절에 가아하는 날에 벌였다. 전도 잔치를 하기 이를 전부터 그곳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개인전도를 하고 20일 목요일 정오에 함께 잔치를 하자고 초청을 했다. 단기 선교단은 교회의 선교비보다 각자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선교비를 전도잔치 기금으로 헌금하여 2만부(약 34만원)의 기금을 모아 잔치를 준비했다. 기도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그날 함께 식사를 하고 전도를 받은 학생들은 공동학생8명을 포함하여 대학생 200명이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염불소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장관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스리랑카 신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다.

이글은 이태윤(고등 2부)이 지난 14일 스리랑카단기선교회를 떠나기 앞서 단기선교를 지망하게 된 동기와 사역을 앞둔 신정을 적은 글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4일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10박 11일간 머물면서 학생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살았다고 믿었는데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았 습니다. 이 세대는 제 때 맡겼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맙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니 공부해서 나중에 해야. 대학에서 그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자. 주께서 제게 가라 하고 있다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하늘 영광 버리고 죽기 위해 절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을 부린다고 주의 의지를 위해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도하게 되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요. 그러면 주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역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준천 소년원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강수희(생년부)

이 편지는 소년원에서 만난 한 학생이 쓴 글이다. 이 글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식하고 아는 것도 하나 없는 자이지만 성경학교를 통해 느낀 바가 있어 몇 자 적어 하나님께 영광돌릴까 합니다. 하나님도 알다시피 죄악을 범하도록 강요받은 것만 일삼고 돌아다니는 소년원까지 오게 된 게 이곳에서야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큰 깨우침은 아니지만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참 많이 이 원망했습니다. 배고파하던 어린시절과 행복할 일 하나 없던 자란 저의 지난날을 돌아볼 때는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국민학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은 편지와 구탁에서도 그랬었고 어린 자식은 뒷전인 제 일에만 매달리던 아버지와 아들이자 외인한제 하나님을 모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때면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일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설사 거론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다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 위해 올려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가슴은 곳에서 무려라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치솟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2번에 걸리는 눈물속에서 저는 위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않고 방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부터 새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물

부림처럼 빠져 나오려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이시거든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인도를 성을 기억하게 하여주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찾아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을 정리하면서 그때의 감격과 눈물이 생각나 좋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단천치 마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지만 시간 시간마다 선성생들의 눈물이 흐르고 찬양과 찬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 다. 비록 죄를 지어 이곳 소년원까지 오게 되었지만 대부분 가정적인 문제로 오게 된 학생들을 많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보다 저들의 영혼이 더 순수한을 느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온순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더 겸손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대해 알고 또 믿게 되었고 마태복음 50여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 다. 해이결때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아이러 눈물을 머금고 작별을 하였습니다.

겨울 성경 학교



조선자를 위한 신앙강좌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어떻게 하나요

전헌준 목사·예배위원회·14교구 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둘뿐입니다. 그 하나는 구원 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요, 나머지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름 다른 가정을 이루는 순종교회의 결혼 예식은 어떻게 준비하리, 진행시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결혼식 일정지 정해지면 신랑 신부는 서류(세례교인 증명서, 양가 결혼 승낙서,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결혼예식신청서)를 갖추어 교회에 제출하고 주례목사님을 만나보고 인사를 드리고 장소사용을 허락 받습니다. 이때 주례자의 유의사항을 잘 듣고 결혼식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일엔 시간을 준수하되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준비사항은 반주자, 특수자를 확인하고 부를 곡도 예배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자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할 분은 적어도 두분을 신청하여 촬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하고, 비디오 촬영할 분도 30분 전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진행시 유의 사항은 결혼하는 당일 아침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은 결혼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5분전에 양가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식장 앞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고 신랑 신부와 신부 인도는 입장할 위치에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촛불이 있을 경우에는 양가의 어머니들이 집니다. 3분전에는 주례자의 주의 말씀이 있고, 2분전에 출입문을 닫고 입장하게 되면 정장에 예식을 시작할 수 있어 결혼 첫시간부터 시간을 준수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이 끝나면 주례자는 남편과 아내를 향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몸을 이룰 것을 전하는 복음적인 내용으로 설교하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이때, 성경책 위에 신부의 손을 놓고, 그 위에 신랑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주례목사님이 손을 얹고 축복 기

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면 주례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이 성립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축가의 순서가 있으면 성가곡이나 찬송가를 부르도록 해야 하며, 예식장에 5분전까지 도착하여 지정된 알자리에 앉아 기도로 준비하다가 주례자의 신호에 따라 즉시 나와 축가를 부릅니다. 축사나 인사 순서는 예식의 경진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으며, 광고는 주례자가 대신합니다. 그후 주례자가 축도를 하고, 축도가 끝나면 신랑 신부가 내빈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후 신랑 신부 행진이 있는데 이때 양가 부모님은 주례자의 신호에 따라 문쪽으로 나가서 인사준비를 하고 있다가 폐회시에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진이 마치고 신랑 신부가 단 앞까지 오면, 주례자는 모든 예식의 순서가 폐회됨을 선언하고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식이 마치고 끝니다.

3. 결혼후 신랑 신부는 첫주일을 본 교회에서 지키며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는 신혼가정부에 등록하여 결혼준비반 교육을 받으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결혼후에는 다른 신혼 부부들과 성경공부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계속 양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이후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가정이 믿음의 형제 자매간에 더 많이 배속될 바라며, 그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진정한 행복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만평



글·그림 / 정대선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나온 ♥최명희'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나온 형제의 어머니 (이신자 집사 - 새가족부교사)는 자녀성장과 온가족이 믿음으로 서기까지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온 분이십니다. 우연한 기회에 집사님의 두

겨운 광세노트를 본적이 있었고 그 노드 속에 이나온 형제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글을 보았는 그와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 최명희 자매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으나 집이 이사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형제를 만나 교제하며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새내기 부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송은혜' 성도를 소개합니다



가톨릭 계통인 대학교를 다니며 결혼하고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성경말씀이 낯설지는 않으나 머리로 아는 이해가 되는데 삶속에서는 잘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하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보입니다. 사도함만큼 많이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준집(새가족부 통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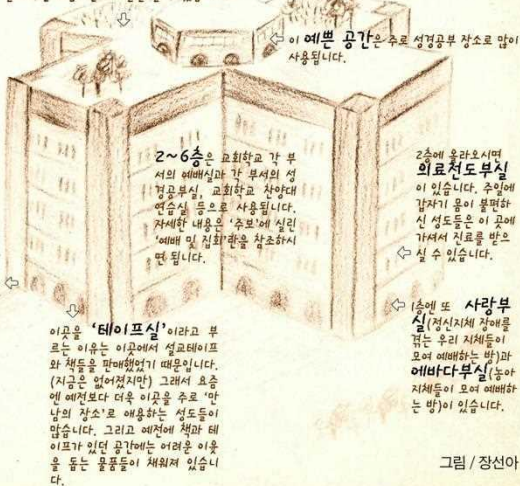
*자녀주에 소개된 새가족 한가족 성도 성함이 오기 되었기에 정정합니다.

교회 안내 3

송헌의 새가족들을 위해 오늘은 교육관을 소개합니다

교육관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을 보실 때마다 목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본당보다 교육관을 먼저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천국입문 키'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교육관 옥상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곳에서 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지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엔 사무국, 교육국 등 성도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부서들이 있습니다. 공공관인 새가족에 필요한 하시면 금방 금공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물론 신도에 대한 신학교 및 사무실에 하면 됩니다. 신학교 등과 관계된 문의는 교육국에 하면 됩니다. (교회학교/주강성경공부 등)

이교를 '데이프리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교에서 성도들이와 책들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같이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배회보다 이교 이교를 주로 '반'의 장소로 애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책과 테이프가 있던 공간에는 여러를 이교를 듣는 음물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2~6층은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당과 각 부서의 성경공부실, 교회학교 찬양대 연습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목'에 실린 '이교' 및 '이교'를 참조하십시오.

2층에 올라오시면 의료전도부실입니다. 주일마다 감사가 많이 불필요한 성도들은 이곳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층에 사랑부실(적시적제 예배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모여 예배하는 방)과 예배다부실(노아 지체들이 모여 예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림 / 정대선

내 입의 진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김 동 석(청년2부)



종교적인 방법으로 상투화되어버린 삶의 조각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기에 나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죄의 파편들로 포장되어 있는 나에게 찾아와 병든 곳을 도려내시고 꺾어내시며 치유하여 주신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김을 주시니 나를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심한 망고치소서." 아멘.

말씀 시간에 찬양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올 때면 지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해 주신다. '청년2부'를 섬기며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힘들고 분주할 때 하나님은 꿈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다. 찬양은 미성숙한 나를 성숙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겸손하게 만들며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갈급함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채워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힘으로 할 수 없사옵나 하나님께의 능력에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회개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8장은 해리 플라크 목사님(1888-1957)이 작사 작곡한 곡이다.

1절은 몸부림치는 어려운 삶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 2절에서 잠깐인 예수님께 삶의 모든 짐을 맡긴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요 죄인에게 구세주며 고독한 자에게 벗이며 병든 자에게 해방자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내어맡기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3절에서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의의 빛으로 비추어 죄를 씻어 주셔서 늘 충만하기를 간구한다. 4절에서는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의의 빛으로 채우사 죄를 씻어 달라고 간구한다.

주님은 언제나 죄로 더럽혀진 영혼에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죄의 때를 벗기 전에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출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한다.

구정연휴에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금주는 구정연휴 주간입니다. 모처럼 맞는 휴일의 기쁨, 가족 및 친척들과 모이는 기쁨, 잘 자려진 상을 받는 기쁨, 세배돈을 주고받고 율거락을 던지며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기쁨이 좋은 구정입니다. 하지만 자칫, 해운 웃음과 실속 없는 자랑들과 생각없는 농담들, 막연한 즐거움에 들뜬 수 있는 구정이기도 합니다. 음식장만하느라, 없는 돈에 세배돈, 선물 등을 준비하느라, 맘에 맞지 않는 사람 얼굴 보느라 스트레스만 잔뜩 받을 수 있는 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정 아침 일찍, 혹은 구정연휴 전날 밤 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구정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가족예배를 드린다면, 연휴의 모든 날들을 주님 뜻 안에서 보다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구정엔 시간을 내어 꼭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찬송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다같이
가족의 평안을 비는 기도		가족 중 누구나
성경봉독	골3:1-11	둘이가면서
메시지 낭독	'성도의 생활요전'	부모님 중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없는 삶은 경기장에서 방향없이 뛰는 것과 같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먼저 소극적으로는, 욕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 권세를 좋아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또 열기를 버리고 시기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거짓말이 나오기 쉽고, 내 몸부터 사랑하면 남을 희생시키기 쉬우나 하나님부터 사랑하면 돈도 기술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하여 화목하고 같이 참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김창민 목사 절기 설교 중)

구정기간 중의 생활을 위한 기도	가족 중 누구나
주기도	다같이

제2의 인생이라고들 말하는 결혼

이 수 진(청년2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와 하는지도 모르면서 고2때부터 기도를 해왔다.

98년 6월 하나님께 향한 나름대로의 꿈을 안고서 5년이라는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나왔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도 매달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키셨다. 그런데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으로 시집과 사당한 시어머니 밑에 행복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꿈을 꿴단다. 가정, 나의 처녀시절에 비하면 불안하지만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나의 기도생활은 게을리하지 시작했다.

6개월 만에 첫 아이가 유산되었다. 그때 잠깐 눈물도 매달렸으나 다시 예언으로 돌아갔다.

은 종래에 해박하지 못이 차도 그 물살을 꿔고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던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주일하루 열심히 봉사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생활로 만족하고 있었다.

첫 아이가 유산되고 하나님께서 또 잉태의 기쁨을 주셨지만 기쁨도 잠깐. 가정, 나의 처녀시절에 비하면 불안하지만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나의 기도생활은 게을리하지 시작했다.

서 난 더 내내해졌고 교만과 안일함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었다.

어느덧 임신 4개월에 접어들었고 정기검진이라 병원에 갔더니 태 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저기 인간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기에 급급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 몸 자신도 자를 자신도 없으면서 무릎 꿇을 줄 몰랐으니...

금요찬양집회 후에 기도원으로 향했다.

죽지 않았어야 덕이 되었을 것 같은 나사로였으나 죽은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웃었고 끝내 그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접되었다는 설교를 들었다. 나의 신앙상태는 나사로와는 다르지만 나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본명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함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말이다.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면서 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주님, 할 수 있거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이 막히지 않게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난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복원망이 열리면 평양에 예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작은 힘이나마 꼭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했



다. 내가 못했거들 댜면 내 자식이었도 주님께 드러서 대를 뒀다는 꿈이 있다. 하지만 유산이 팔팔하고 내 몸부터 아끼고 있었으니 이래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파를 흘려야 된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아이를 보내라고 한다면 보낼 수 있을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지 않게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나의 결심은 결심으로만 그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받은 초음파결과 결과 7300:1이라는 아주 희박한 기행아 확률 수치가 나왔다. 마음을 이파하시면서까지 나에게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주님, 사나 죽으나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지체들 소식

영아부

학부모 특강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 어떻게 행하오리까(삿13:12). 지난 주일 영아부는 학부모 특강시간을 가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원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소원하며 모두 열심이었다. 먼저 하루 한편 이상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아기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생활,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는 시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2000년도 새해 첫달 말씀으로 문을 열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게 하는 특별강의여서, 정말 감사하다.

(송해경 통신원)

유아부

교사들 '형상회복' 책으로 공부

유아부 교사들은 1주예배와 2주예배 사이에 '형상회복'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어. 여러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신남을 추스리는 일만큼 급한 일이 또 있을까. 과별로 앉아 다른 일들 다 미루고 한주동안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로 토론회를 하니 얼마나 뿌듯하단지요. 우리 유아부 교사들이 자기 할일 많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가르치는 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더욱 더 마음을 가다듬는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아이들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임미소 통신원)

영어예배부

교회학교에서 학생예배 시작

영어예배부 교회학교에서는 금년부터 교회학교 학생들의 예배에 대한 바른 참예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학교 시작 10분동안 짧은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예배드릴 때 집중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육주연 통신원)

대학부 소그룹

‘봉공방’은 옛친구들 때

주 월, 수요일 ‘봉헌동 공방방’ 아이들의 학과공부를 지도해왔는데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지난 25~27일 교육관 2층에 ‘겨울성경학교’를 열었다. 평소 공부방에서는 갈아두지 않았던 성경공부시간을 많이 회복하는 기회로, 미니올림픽 등의 오락시간도 마련하여 아이들의 영육상 성장을 도모했다. 한편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대학부 ‘봉공방’ 회원으로 구성된 교사들은 특히 아이들과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 친밀해져 정서적으로 학과공부를 도울때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으며 연신 기쁜 표정을

나를 배운 만나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라”

고 법 석 (고동무 찬양대 지휘자)

‘주님, 어떠한 순간이 제게 닥쳐와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환관 중에 주님께 드렸던 가장 첫째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나는 더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그 순간, 문득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주님, 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선 이런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정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법석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라.’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나는 꼭꼭도 할 수가 없었다. ‘또 부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누가복음 9:23). 심령을 열어 주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더욱더 난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게 하소서. 내게 사상에 치어 부서지고 만신 창이가 될지라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되심을 믿습니다.’

충현 지상교회학교
(紙上敎會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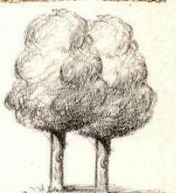
성경말씀

Q. 때때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차이가 갈등입니다. 나는 좋은 모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는데...

A. (이사야 9:6)를 보면 예수님은 훌륭한 성당주요 그는 하나님이자 아버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신생물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환경을 이해하며 부모님으로 인한 갈등을 이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천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보였지만 하리요 그분들 믿어 대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좋은 모델을 찾고 있는 지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줄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또한 부모님의 문제와 형제님의 문제를 구별하시고 형제가 할 수 있는 일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분별하십시오.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떠나고 있고 형제 열에 계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형제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형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가정에서 세우신 권위자임을 인정하시고 계속 고백생활하며 형제의 문제를 개발하시고 온기를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전해 나감 됩니다. 자신의 발휘되지 않는 성령으로 열매를 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형제의 성격을 개발할 것 그리고 그리고 그후에 계속 노력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서당신은 몇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양호실

- ◆12교구 신명호 집사(백제국) 뇌출혈로 경희의료원에 입원중이신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화정구역 이경순 집사(영일선 권사님)의 자부 폐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꼭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고순정 권사(타고난) 김경순 전도사님과 김정화 권사님의 모친으로 직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완쾌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청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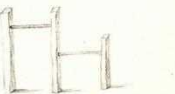
당당교역자와 교
사들은 지난 18일 청년1부나 명동전도
를 함께 명동거리전도집회 갔었다. 교회 밖
의 현장에서의 복음의 능력 전파를 목적으로 2
월 중순경부터 실시된 토요 거리전도집회의 준비자
회에서 선행되었는데, 이들은 새한 영화의 바람을
오면서 1500장의 전도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
네주며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날 전도자들은 전도
받는 사람들의 개성 거꾸나 버려진 전도지에 예
상 외로 없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어 추
위로 있을 수 있었고,

장년

3부 60대

성도들은 옛 학창시절의 학교
일이 되지만... 성도들은 줄줄
이 담장목사의 히브리서 강해를
노우터에 ‘필기’하기로... 이는 강해
를 더 집중하여 강청하고 강해내용,
관련 성경구절을 자주 삼고계하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성도들
은 각자 노우터를 마련, 받은 바 말씀
을 열심히 적었는데, 한 성도는 평소
에도 필기한 내용을 읽고 성구를 찾
아보며 읽으려하기도 하게 되었다
며 ‘필기운동’의 효과에 반
색.

운동장



유치부

3부 23일 '영구'

수업이 있었다. 분반공부만 중 한 반
을 선정, 교사들과 담당교역자가 수업과 교
을 참관, 성경공부 내용 및 진행방법 등의
경·단점을 성경적 관점에서 평가, 유치부
전체 분반공부반의 개선할 바를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들에게 오절카드를 나
누우며 매 주 구절의 외우게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외워와
서 교사들을 감격하게 했다고.



